

간 호 원 의 현 황

—서울 직업여성클럽 주최 세미나에서—

지난 8월 본협회 부산시지부 김영자회원의 구속사건으로 전국 일간지는 물론 주간지에서까지 그 구속의 부당성을 들어 크게 보도한 일이 있다.

따라서 간호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 9월 9일 YWCA연합회 회의실에서 서울직업여성클럽주최로 “간호원 현황”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본협회 윤수복총무가 숫자를 근거로한 간호원의 정확한 실정을 밝히는 주제 강연을 맡았고, 페날리스트로서 세브란스병원의 임의선 병원장과 이화간호대학의 하영수 교수가 자리를 같이 하여 진지한 토의로 예정시간을 훨씬 “오바”한 토론으로 막을 내렸는데, 이날 참석자는 각 여성단체 간사와 대학교수, 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이었다.

다음에 이 세미나의 주제를 맡은 윤수복총무의 강연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겠다.

◇ 간호원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원면허 소지자 총수는 1만3천2백80명(1969년 4월말 현재)이고 그중 국내취업자가 약 7천명, 해외진출자가 약 1천7백명에 달하고 있다.

해외진출자를 나라별로 보면 미국에 약 5백명, 캐나다에 1백50명, 서독에 1천명, 스웨덴에 10명, 스위스에 15명, 월남에 30명이 분포되어 있고, 미취업자는 약 5천명으로 추산되며 그중의 2백68명이 50세 이상이다.

한편 간호학교를 통해서 배출되는 간호원 실태를 보면 초창기인 1908년의 단 2명에서 시작 오늘날에는 간호대학으로 교육기관까지 승격되

고 68년도엔 908명이 배출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간호학교의 총졸업생은 13만3천3백49명이 되었다. 그러나 그중 간호원 면허를 내지 않은 사람이 1천5백14명이나 된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간호대학 2, 간호학과 4, 간호학교 25, 간호고등기술학교 12개 등 총 43개교에서 70년도에 1천4백23명, 71년에 2천2백5명, 72년에 2천5백명의 졸업생이 나올 예정이다.

◇ 간호원의 활동

간호원의 중요활동처는 대개 병원인데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병원 2백15개소에 약 3천1백명, 그중 군에서 4백38명이 종사하고 있다. 보건소는 1백89개소에서 1천3백50명이 활동, 개인병원이 약 4천개소에 간호원은 교각 1백50여명이고, 기타 산업장에 약 3백여명이 봉원되어 있다. 그 밖에 양호교사로서 진출한 사람이 약 8백30명, 일반교직에 2백20명 그리고 기타가 4백명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기혼·미혼별 상태를 보면 취업자 5천8백94명중 미혼자가 3천4백25명으로서 전체의 58.1%, 기혼자가 2천4백69명으로서 41.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68년도 통계)

◇ 간호원의 대우

국공립종합병원 간호원 직급은 종사간호원 약 2천5백명 중 3급 갑 3명, 3급 을 19명, 그리고 4~5급, 또 임시직으로 3월되는데 간호직 공무원은 90% 이상이 5급으로 되어 있다.

국공립병원(서울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본 직급

별 봉급액을 보면 3급 같이 3만1천8백50원, 3급
 율이 2만3천80원, 4급같이 1만5천1백70원, 4급
 율이 1만3천8백30원, 5급 같이 1만3천5백90원,
 5급 율이 1만2천6백30원이다.

반면에 사립병원의 경우(A급, 한일병원) 간호
 원장이 4만원~4만5천원, 감독이 2만5천원~3만
 원, 수간호원이 2만원~2만5천원, 일반간호원이
 1만5천원~2만원이다.

◇ 간호원의 수급

그러나 간호업무의 다양화에 따르는 간호원 절
 대 부족으로 정부는 68년도 수급계획에 임상분
 야에 1천5백명, 보건분야에 7천명, 총 2만 2천
 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수
 는 1만5천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7천명의 간호원을 인구
 비로 볼 때 3천명 대 1명꼴(미국은) 300:1, 유럽
 은 400:1)도 못되는 수이며, 이렇게 보면 과부
 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부족의 현
 상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지만 간호학생수의
 증원은 고도의 지식과 판단력, 정확한 기술 등
 을 필요로 하는 간호교육 시설의 미비상태에서
 얼마나 수급을 낙관할 것인가는 문젯점이 많다.

그 수급대책의 하나로 첫째 미취업자 5천여명
 을 가급적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 대신 채용조
 건(경제적 지위 향상)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
 은 곧 수급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
 으니까.

둘째, 3천7백여명의 간호보조원이 이미 배출
 또는 배출되고 있으니 이들을 효율적으로 보건
 행정에 이바지하도록 간호보조법에 의거, 의사
 나 간호원의 감독 하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셋째, 간호원 채용에 있어 기·미혼자를 구별
 없이 경험과 능력본위로 채용하는 원칙이 마련
 되어야 한다.

넷째, T.O. 책정과 직급문제인데 국공립병원
 이나 기관의 경우 간호원 부족을 떠들면서도 T
 O.를 책정치 않고 임시 T.O.로서 유지하고 있는
 예가 많다.

또한 국공립의료 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
 호직공무원의 90%가 5급공무원으로서 거의 승

진할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직
 공무원의 직급을 교육과정과 업무자재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최저 4급으로 하고, 상급직급을 대
 폭 높여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며, 간호원
 의 정규직 정원수도 대폭 증가해야만 하겠다.

◇ 간호교육 기능의 강화

인간의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엄숙한 사명을
 띤 간호원의 교육은 실습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당국은 시설비를 보조하여 시설의 확충에 최대
 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 증원에 따라서 교원의 확보문제도 아울러
 간호원 부족 이상의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
 다. 지도자가 없는 교육에 성실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간호학교 출신자중 경험이 있고 유능한
 교육의 적임자에게 교원 자격을 할 수 있는 특수
 양성기관도 있었으면 한다.

◇ 사회적 인식의 개선 시급

의료법 제25조에 「……전략……간호원이 아니
 면 간호업무를 행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명
 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간호
 원이란 3~4년간 전문교육을 통해 정신적 육체
 적 기술을 연마한 뒤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받
 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개인병원의 경우 간호보조원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서 정식간호원의 일을 맡긴다는 것
 은 유감스럽다. 이 보조자들의 실수가 발생했
 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상의 주제 강연이 끝난 후 세브란스병원장
 임의선 박사가 간호원의 수급문제는 대체로 낙
 관한다고 반론, 대우문제로 많이 해외로 빠져 나
 가나 가급적이면 인력수출을 건제해서 국내의 수
 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
 리 나라에서도 큰 병원의 경우 1년에 50%의 이
 동율을 보이고 있다. 또 하영수씨는 간호학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 주제강연을 보증했
 다.